

‘출현의 정치’가 ‘망각의 구멍’에 빠지기 전에 생각해야 할 세 가지

: 「두려움 없는 발언과 저항」에 대한 코멘트¹⁾

시미즈 토모코(清水知子)

오늘은 시사하는 바가 풍부한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 109
없는 발언”을 푸코의 ‘파르레시아’의 번역으로서 파악하면서, 어셈블리를 재
고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가 되는 것은 ‘두려움 없
는 발언’ 혹은 ‘진실을 말하는 리스크에 몸을 노출시키는 용기’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으로서 이해되려면,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점일까요? 이하, 저도 논
평으로서 세 가지 점 정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려움 없는 발언’과 아렌트에 의한 ‘출현의 정치’에 대해서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확실히 ‘파르레시아’는 “어떤 진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화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믿음을 필요로 하며, 화자를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려움 없는 발언’은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과도 서로 반항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가 단순히 그 화자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
요? ‘두려움 없는 발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기능하는가라
는 물음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언어행위에 의
해 리스크에 노출되는 화자의 신체와 그 ‘용기’뿐 아니라 그 언어행위에 ‘귀

1) 본고는 2018년 12월 11일 메이지대학교에서 개최된 『어셈블리』 검토회에서 버틀러 씨의
발표 원고에 대한 코멘트 원고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를 기울이는 기술'과 그것에 의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붕괴되어 가는 리스크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용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110 면 오늘날의 전지구적인 정치상황 하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현실을 되돌아볼 때, 설령 '용기'를 가진 '두려움 없는 발언'이 이뤄졌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망각의 구멍'에 빠진 채 최악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 중 하나는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에서 당신이 스피박과 얘기를 나눈 “누에스트로 힘노(Nuestro Himno)”(우리들의 노래)의 출현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것은 2006년 봄에 캘리포니아 주의 많은 도시에서 불법 체류자에 의한 거리 시위가 벌어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미국 국가(國歌)가 마치 멕시코 국가인 것처럼 스페인어로 불려진 LA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담 속에서, 당신은 이 사건 속에서, 국민의 복수성, 특히 '우리'란 누구인가를 묻는 국민에 대한 사고방식, 평등에 대한 사고방식, 다양한 귀속형태, 번역의 정치성, 그리고 거리를 재무대화하는 퍼포머티브한 정치의 가능성을 읽어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어셈블리: 행위수행성·복수성·정치』에서 논한 거리에서 모이는 신체와 <이야기하는> 말의 문제는 이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저작에서 논했듯이 “아렌트를 거슬러 아렌트를 읽는 것”은 체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가 논한 사적 영역에 관한 논의에 대한 당신의 실망과 비판에는 동의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모델로 한 공적 영역으로서의 정치에 대해, 사적 영역을 노예나 아이들, 혹은 공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물질적 삶의 재생산에 종사하는 어두운 영역으로서 논한 아렌트의 견해에 대한 비판입니다.²⁾

2) Judith Butler and Gayatri Chakravorty Spivak, *Who Sings the Nation State? Language, Politics*

그것은 아렌트에게서 사적 영역은 정치적이지 않고 정치가 “국민권 없는 사람이나 무급노동자나 거의 비가시적인 사람들, 혹은 전적으로 비가시적인 사람들의 영역을 설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무국적자를 아감벤이 말하는 ‘벌거벗은 삶’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국적자로서 생산되고 동시에 법제적인 귀속형태로부터는 쫓겨남’으로써 ‘내부화된 외부로서 폴리스 안에 포섭되고 있다고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에 의해 ‘권리들을 박탈당한 삶조차도 정치적인 영역의 내부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단순한 삶으로는 환원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고 저항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합니다.³⁾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난민이란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빼앗긴 존재라고 논했을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들을 가질 권리”가 소유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는 다르며, 타자가 응답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권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렌트에게서는, “타자와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 언동에 있어서 타자와 만나는 것이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 없는 자유’에 있어서,¹¹¹ 혹은 설령 침묵한 채서 있어도, 복수적이고 신체화된 행위수행의 일부로서 거리와 광장에 집합해 출현한 신체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 ‘부름의 광경’에 있어서 내기에 걸려 있는(관건이 되는) 것은 나와 우리, 나와 타자 사이에 뭔가 생긴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타자를 벽의 저쪽으로 내몰고, 듣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서 편치 않은 공간을 ‘합리’적으로

and Belonging, Seagull Books, p.16.;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혜연 옮김, 산책자, 2008년.

3) Judith Butler,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 47. 일역본, 『어셈블리: 행위수행성·복수성·정치(アセンブリ——行為遂行性·複數性·政治)』, 佐藤嘉幸·清水知子訳, 青土社, 2018년, 107頁.

형성하는 것에만 경도되어 있는 포스트-들뢰즈의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신체성을 수반하는 인터랙티브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고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 ‘두려움 없는 발언’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말하는 리스크에 신체를 노출하는 ‘용기’와 동시에 타자와 만나는, 혹은 다시 만나는 계기로써 ‘귀를 기울이는 기술’을 어떻게 쇄신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어셈블리』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정치형식과 인민주권의 원리 사이에 처음부터 존재하는, 모종의 이접(離接)”과 “이 두 가지를 각각 별개인 채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입니다.⁴⁾ 이 지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빠뜨릴 수 없는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모델을 좇은 경영적 국가에 탈취당하고, 혹은 사유화(私物化)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형식과 인민주권 사이의 골이 넓어지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어셈블리라는 집단적 형식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갱신해나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골은 정치형식과 인민 사이에만이 아니라, 인민과 인민 사이에서, 나날이 더욱 깊어지고 오히려 수많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MeToo 운동을 둘러싼 열등도 그렇습니다. 아주 최근, 이 운동에 대한 대응에 당혹해 하는 월가의 남성들에 대해 “아무튼 여성들은 피하라”와 “#MeToo 시대의 새로운 규칙”을 외치는 본말이 전도된 언동이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파르레시아와 고백은 다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운동을, 서로의 범주를 횡단하는 제휴로 향하는, 정치적, 경제적

4) 앞의 책, 『어셈블리(アセンブリ)』, 7頁. 영어판, p.2. “I mark these recurrent tensions in democratic theory in order to underscore from the start a certain disjunction between the political form of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since the two are not the same. Indeed, it is important to keep them apart ...”

인 투쟁과 접촉해나갈 수 있을까요?

알려져 있듯이 ‘어셈블리’라는 말은 직접 민주주의적 의미의 ‘집회’와 간접 민주주의적 의미의 ‘의회’라는 이중적 의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의회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전제로서 투표자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기본적인 전제는 거의 붕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격차를 동반하여 ‘불안정성’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불행하게도 현대의 사회는 진실보다는 가짜뉴스 fake news 쪽이 강렬한 임팩트를 갖고서 순환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것에 대한 상상력은 가난해지는 한편,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적은 장소에 몸을 두려고 누구나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성, 퀴어, 트랜스젠더의 사람들, 빈자, 신체장애인, 무국적자, 또한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를 집합시키는 개념’⁵⁾으로서, “이런 범주들을 횡단하고 서로가 귀속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잠재적인 연계를 산출하는”⁶⁾ 출발점이 되어야 할 ‘불안정성’이라는 당신의 개념이, 거꾸로 굳건한 정체성 논쟁의 원천이 되고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분단/단절해나가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정성으로 이루어진 연대가 질투, 애국주의, 인종주의라는 마이너스의 악순환 spiral에 빠져,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이런 배경 때문에, 스티븐 레

5) 앞의 책, 『어셈블리(アセンブリ)』, 47頁; 영어판, p.58. “Precarity is the rubric that brings together women, queers, trans-gender people, the poor, the differently abled, the stateless, but also religious and racial minorities.”

6) 앞의 책, 『어셈블리(アセンブリ)』, 77頁; 영어판, p.58. “indeed, it cuts across these categories and produces potential alliances among those who do not recognize that they belong to one another.” (옮긴이) 77페이지 아니라 47頁인 것 같다.

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등이 지적하듯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후퇴가 선거에 의해 시작되고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민주적인 제도’의 활용에 의해 가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아주 최근, 헝가리에서는 젠더연구가 금지되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너무도 많은 불투명한 문제를 안고 있는 채로 입관법개정안⁸⁾이 성급하게 각의에서 결정되고 숫구치는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 헤노코 매립구역에 토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란 조끼’ 운동처럼, 우파/좌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다양한 목소리가 격렬하게 올라가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형식의 어셈블리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의의 척도가 여러 개 있는 시대에, 이런 각각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셈블리의 형식과 그기능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민 속에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관계성을 어떻게 재건하고 ‘생존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인프라를 재구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자본주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생산적이든, 항상 참가하라고 외치는 시대에, 이 사회에 정치적 주체로서 참가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은 또한 이런 현상에 대해, 안토니오 네그리나 슬라보예 지젝이 각각 다른 형태로 주창하는 <커먼스>를 둘러싼 코뮌리즘이나 관료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7)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What History Reveals About Our Future*, Viking, 2018. ; 스티븐 래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2018. ; 일역본 『민주주의의 죽음: 양극화하는 정치가 부르는 독재로의 길(民主主義の死に方——二極化する政治が招く独裁への道』, 濱野大道 訳, 池上彰 解説, 新潮社, 2018年(Kindle)

8) [옮긴이] 入管法改正案 (출)입국 관리법을 가리키는 말 ‘단순노동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주요 목표로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저의 세 번째 물음은 ‘인민’과 미디어에 대한 것입니다. 『어셈블리』 113
 블리』안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인민”은 단순히 그들의 발성된
 주장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현(등장)의 가능성의 조건들
 에 의해서도 그리고 또한 그 시야 내부에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신체화된 퍼포먼스의 일부로서도 산출되고 있다. … 만일 인민이 퍼포먼스
 이미지, 음향, 그리고 이런 생산들에 연루된 다른 모든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한다면, 그때 ‘미디어’는 단순히 누군가
 가 인민이다, 라고 주장하는가를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정의 그
 자체 안에 미디어가 참가하고 있는 게 된다. 미디어는 단순히 그 정의에 힘을
 보태거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만이 아니다. 미디어는 자기 구성의 소재이
 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다.”⁹⁾

여기서의 세 물음은 이런 상황 하에서의 신체와 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
 의 시대와는 또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작동할 가하는 소셜 미
 디어나 디지털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펠릭스 가
 타리가 논한 ‘포스트미디어’라는 개념을, 현재의 포스트 민주주의 사회, 포스
 트 정치의 시대에서 어떻게 유효한 형태로 쇄신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세 가지 코멘트를 통해, 여기에서는, 집단적 파르레시아로서의
 어셈블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민’이라는 개념 그 자체의 틀을 어떻게
 재개념화하고, 또한 포스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헤
 쳐 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9) 앞의 책, 『어셈블리(アセンブリ)』 28-29頁, 영어판, pp.19-20. “...“the people” are not just produced by their vocalized claims, but also by the conditions of possibility of their appearance, and so within the visual field, and by their actions, and so as part of embodied performance. ... If the people are constituted through a complex interplay of performance, image, acoustics, and all the various technologies engaged in those productions, then “media” is not just reporting who the people claim to be, but media has entered into the very definition of the people. It does not simply assist that definition, or make it possible; it is the stuff of self-constitution, the site of the hegemonic struggle over who “we” are.”